

<동정자료>

김정렬 차관 ‘베트남 정상순방 후속, 교통인프라 협력 확대’ 베트남 교통부 차관과 북-남 고속도로, 룡탄 신공항 등 참여방안 협의

- 김정렬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방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, 8일(화) 정부세종청사에서 베트남 교통부 응엔 반 썸(Nguyen Van Cong) 차관과 면담을 진행하였다.
- 김 차관은 지난 3월 국빈방문을 계기로 베트남 교통통신대학교 내에 설치한 ‘한-베 교통 인프라 협력센터’를 중심으로, 경부고속도로를 통한 경제발전 경험과 동북아 허브 공항으로 자리매김한 인천공항 등 인프라 개발·관리 노하우를 지원하겠다고 밝히며,
 - 베트남 남북 교통의 핵심 축으로 개발 중인 ‘북남고속도로’, 경제 중심지 호치민 인근에 건설 기본계획을 수립 중인 ‘ 룡탄 신공항’ 등 대규모 인프라 확충사업에 한국기업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.
 - 응엔 반 썸 차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방문으로 양국간 협력관계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고 평가하며, 베트남 교통부 차원에서 한국기업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우리기업이 현지에서 겪는 애로해소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.
- 한편, 정부는 범부처 차원의 정상외교 관리체계를 본격 가동하여 구체적인 후속조치를 추진 중에 있으며, 국토교통부는 민관 합동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상방문 성과사업이 실제 수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.

2018. 5. 9.

국토교통부 대변인